

지역 매아리

부안군, 재난형 가축전염병
강도 높은 방역대책 마련

부안군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부안군민의 특색 있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부안스포츠파크 주변에 신속하고 있는 거점소독·세척시설이 오는 7월 중 준공되면 특별방역기간 외에도 상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또 겨울철 오리나 양계농가에 대해 휴지기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AI 확산을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과 가금농가의 사전 신고제를 강화해 조기 감염축을 색출, 질병확산 방지 및 살처분 등 방역비용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가축인 한우나 젓소농가 등 구제역 발생 축종에 대해 예방백신 시술시 소농들만 공수사가 지원했으나 시술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가축사육농가(우제류 885호, 가금류 132호)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해 가축질병 발생위험도 및 위기시기와 관계없이 축산시설을 점검하고 농장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으며 미흡농가는 부안군 방역팀에서 재점검해 시정 등 가축질병 없는 청정부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모로모로 탐방열차 운행재개

고창군 고인돌박물관과 고창고인돌유적지(447기) 2km를 오가는 '모로모로 탐방열차'가 모형을 재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모로모로 열차는 정기 안전점검과 도색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객차 3량과 동력차 1량으로 구성된 타이어식 무궤도열차인 '모로모로 탐방열차'는 고인돌박물관에서 출발해 25분에 걸쳐 총 447기에 달하는 고인돌 분포지를 둘러보는 코스로 운영된다.

기원전 4~5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창고인돌유적지는 447기 이상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탁자식과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혼재되어 있다.

모로모로 탐방열차를 이용하면 청정고창의 볼 버림을 맞으며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을 감상할 수 있다.

모로모로 탐방열차 이용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다.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간격으로 1일 6~7회 운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희망찬 새만금의 미래 위해

부안군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연계 시책 개발 간담회 개최

부안군은 14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공유 및 새만금과 연계한 시책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개발청이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부안군의 주요사업이 다양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상생 발전해 새만금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사업은 현 정부 들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 재생에너지 사업 등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개발촉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간담회는 전병순 부안군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새만금개발청 김세용 관공진흥과장 및 담당 사무관과 부안군 새만금사업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부안군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캠버리 성공개회를 위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비산먼지 저감 및 새만금 관광사업 개발 등 17개 사업에 대한



부안군이 14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공유 및 새만금과 연계한 시책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유와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공레저용지에 계획 중인 새만금 승마관광단지 조성, 새만금관련 행사 등에 대한 추진상황 및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전병순 부군수는 "이번 간담회에

서 논의된 내용이 새만금사업에 적극 검토·반영돼 새만금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새만금사업 추진 시 부안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품격 있는 안전행복도시 구현

정읍시, 안전도시국 정례브리핑

정읍시 안전도시국이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등 국 관할 6개 1사업소 주요 업무를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노 국장은 "모든 시장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경제와 안전, 도로, 복지 등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들은 특히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업무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계획대로 추진해서 정읍시민 모두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짐은 물론 정읍 발전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로 살맛나는 경제도시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도로망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가속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의 6개 영역으로

나눠 세부 사업들을 설명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나들가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시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읍슈메이커 양성사업을 비롯 전통시장 먹거리 특화사업과 청정에너지 마을 육성 계획을 밝혔다.

또 '시민 안전 최우선 행정'으로 품격 있는 안전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철저한 2019 국가안전대진단(2.18~4.19.)실시,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계획도 소개했다. 지역발전, 특히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세심하게 소개했다.

각종 도로 개설과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상세하게 브리핑하고 주거 복지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실버주택 건립과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사업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의회, 경주지역 원전관련 주요시설 방문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최근 경주지역의 원전관련 주요시설인 월성원자력본부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방폐장)을 방문하여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원들은 월성원자력 본부와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요인을 묻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원전관련 비교견

학을 통한 한빛원전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 및 대응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의원들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돌아보는 등 향후 한빛원자력본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수준 높은 공연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정읍시 연지아트홀, 우수작 초청공연 · 하우스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 마련

정읍 연지아트홀이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시는 올해 우수작품을 초청해 공연한다. 뮤지컬을 비롯해 코미디리사이클, 동요음악회,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푸니와 햄버거'와 '주수박쇼', '어린왕자' 등 6개 작품이 상연된다.

이와 함께 지역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하우스 콘서트도 마련했다. '로만체 피아노 앙상블'을 비롯해 '프로로그 밴드', '우리소리 한마당' 등 수준 높은 12개 작품이 공연된다. 이에 따르면 우수작 초청공연과 하우스콘서트는 이날 16일부터 11월까지 매일 2작품 이상 공연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불거리가 풍부한 공연을 기획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획 공연의 첫 시작은 뮤지컬 '푸니와 햄버거'다. 오는 16일 오후 3시와 5시에 열린다. 푸니와 햄버거는 신나는 음악과 다양한 춤이 어우러진 어린이 뮤지컬로 화려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카카오톡을 통해 추가 공연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연지아트홀 공연(정읍)을 검색한 후 친구 찾기 기능을 하면 신속하게 안내와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6일 '푸니와 햄버거'에 이어 다음 공연 일정이 이어진다. △3월 28일 로만체앙상블 피아노 연주 △4월 13일 주수박쇼(박수홍, 손현수, DJ주주 등 출연) △25일 프로로그 콘서트 △5월 4, 5일에 어린이뮤지컬 어린왕자 △18일 J팸버오케스트라 연주 △25일 오정전통예술보존회 △30일 김소희 발리댄스 △6월 1일 동요음악회 구름방 △21, 22일 그녀를 믿지마세요 △27일 Blue 및 심쿵



밴드 △7월 6일 정읍하울링 우물렐레 △20일 어린이뮤지컬 로빈슨 크루소 △24일 시립농악단 관국현악 △8월 29일 문화공작소 세움 △9월 28일 세대 공감 통기타 △10월 29일 시립합창단의 가을음악회 △11월 28일 그레이스 앙상블 피아노 연주 등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민원행정 · 제도개선 자체 기본지침 마련

정읍시가 민원서비스의 수준과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지침을 개선·보완하여 적극 추진한다.

우선, 행복출산과 안심 상속의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여러 기관에서 출산이동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민원서류 발급의 편의를 증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새마을금고에서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내장커뮤니티센터와 수성농협 앞으로 옮겨

정읍부스를 설치한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과 장애인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비스와 거동 불편자를 위한 휠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안내책자, 청각장애자를 위한 음성증폭기 등을 비치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긴급민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보고 체계를 담당자가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 하도록 하여 사건사고 해결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 접수수술, 전화, 통신 등으로도 받는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